

# 광주은행, 미래 성장동력 발굴하고 지역밀착 경영 강화

###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대내외 금융환경 불확실성 해소 역할 외국인 전문 금융센터 운영·미래전략팀 등 신설 신시장 개척

광주은행이 지역 대표 은행으로 지난해 지원한 1조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 등을 올해도 지속하는 등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상생 경영 행보를 지속한다. 또 외국인 전문 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전략사업팀과 미래전략팀 등의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등 향후 신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 동력 마련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지난 20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 KJ상생마루에서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는 지난해 우수 실적을 거둔 부점 및 직원을 시상하고, 2024년 경영성과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광주은행의 올해 중점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경영방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본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국내 경제 성장률이 1%대 저성장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제 4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

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는 '상전벽해(桑田碧海)'의 금융환경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확실한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은행이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반기 4대 경영 방향으로 ▲미래 성장 동력 강화 ▲핵심 역량 강화 ▲지역 밀착·ESG 경영 고도화 ▲질적 성장을 통한 내실경영 추진 등을 내세웠다.

세부전략으로는 외국인 대상 금융서비스 확대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광주은행은 데이터상포전전략부 내에 '외국인전략사업팀'을 신설해 외국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획 및 운영을 전담시킬 예정이다. 또 새로운 금융시장 개척을 위해 '미래 전략팀'도 신설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난해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비이자영업본부에 카드사업부, WM고객부, 외환사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지난 20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사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업부를 배치해 비이자 수익 확대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각 사업부서들 간 협력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업금융센터, 거점

별 WM라운지, 외국인 전문 금융센터 운영 등을 통한 고객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사업을 통한 전략적 자산 증대 및 선

제적 건전성 관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상생 금융 지원, 지역 밀착 경영 강화 등을 통한 지역 상생 행보도 지속한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및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서민을 위해 1조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과 293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또 '텐텐 양궁단' 운영 및 지역 소재 스포츠 구단인 'KIA 타이거즈', '광주FC' 지원을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역 사회공헌활동에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역 상생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광주은행은 이날 임직원들의 영업 능력 향상을 위해 흡수포 최다매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리얼세일즈(주) 황현진 대표를 초청해 '내일이 그려지는 영업의 품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HS효성첨단소재, SBTi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 받았다

### 기후 변화 대응 이행 기반 확보

HS효성첨단소재가 21일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식 승인받았다.

SBTi는 세계자연연구소(WRI)와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세계자연기금(WWF) 등 주요 국제 기구들이 설립한 것으로, 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들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는지를 검증한다.

HS효성첨단소재가 승인받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글로벌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및 공정과

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과 외부에서 구매한 전력과 스팀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의 총량을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21년 대비 42% 감축하는 것이다.

또 공급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기타 간접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매 상품 및 서비스와 연료 및 에너지 관련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도 2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장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활동,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력구매계약(PPA)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수립하고, 적극 이행할 방침이

다.더불어 주요 협력사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수립을 요청하고, 감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HS효성첨단소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식 승인은 국제적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글로벌 환경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증된 목표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 이행의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 대표는 "글로벌 환경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목표세무서 방문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1일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목표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아 납세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

박 청장은 이날 "일 하나는 제대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별도 신고 없이도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또 재난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기 연장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설 명절 식품안전 특별점검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중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광주검사국과 함께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광주본부는 하나로마트 등 소관 판매장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광주검사국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적정성 확인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점검 ▲냉장·냉동식품 보존기준 준수 확인 ▲위생적 취급 준수 점검 등을 진행중이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 기업 10곳 중 5곳 이상 "설 상여금 지급"

### 지급액 1인당 평균 78만원

기업 10곳 중 5곳 이상이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지난 9~14일 기업 1194곳을 대상으로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55.7%가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78만원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지급액이 13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84만원, 100인 미만 기업은 74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300인 이상 기업의 상여금이 100인 미만 기

업보다 1.9배 많은 셈이다. 기업들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55%·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529개)은 대부분 경영난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 기업은 '위기 경영 상황여서'(29.7%·복수응답), '재무 상태가 안 좋아 지급 여력이 없어서'(27.6%),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27.4%),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5.7%), '불확실성이 커 유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8.9%) 등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밝혔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의 70.5%는 직원들에게 설 선물을 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중기청 창업패키지 지원 참여자 모집

### 청년창업자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025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창업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 뒤 창업 전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과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선정해 글로벌 보육기관을 활용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경우 사관학교에 선정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 평균 7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글로벌형 5개소, 지역특화형 7개소, 투자형 6개소 등 전국에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 적합한 창업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사관학교 지원대상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최대 1억 5000만원, 평

균 1억1000만원 내외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글로벌 보육기관을 활용한 진출 국가별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격차 및 신산업 분야 등을 영위하는 창업 기업이며, 올해는 6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오는 2월 12일 오후 4시까지로,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 창업자는 이후 협약 체결을 통해 3월말까지 이후 본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8.03 (-2.02)
↓ 코스닥	726.07 (-1.59)
↓ 금리(국고채 3년)	2.579 (-0.044)
↓ 환율(USD)	1441.30 (-10.40) (오후 5시 55분 기준)

##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 즉시 상폐...좁비기업 퇴출 빨라진다

### 하반기부터 상장유지요건 강화

하반기부터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폐되는 등 '좁비기업'의 증시 퇴출이 빨라진다.

또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총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퇴출하는 등 상장유지요건은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감사의견이 2회 연속 적정인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미달로 나오는 경

우 해당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을 상장폐지 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로 규정,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의견 미달은 현행 제도상 감사의견 미달시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주기 때문에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감사의견 미달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유 중 발생빈도가 236건으로 가장 높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예외적으로 회생·워크아웃 기업은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은 현행

5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 2027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된다.

상장유지를 위한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2027년 100억원, 2028년 200억원, 2029년 300억원으로 오른다.

코스닥시장도 현행 상장유지 기준인 시가총액 40억원, 매출액 30억원을 시가총액 2028년 300억원, 매출액 2029년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적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상장유지요건 상향조정이 끝나면 유가증권시장은 지난해 수치 기준 전체 788개사 중 약 8%인 62개사, 코스닥시장은 1530개사 중 약 7%인 137개사가 요건에 미달돼 퇴출된다. <연합뉴스